

## 광양 옥룡 주민들 “1년 농사 망쳤네” 한숨

코로나19 여파 고로쇠 약수 찾는 관광객 발길 끊겨  
백운산 약수제마저 취소...농가 숙박예약 부도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광양지역 고로쇠 수액 채취 농가들이 울상이다.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 시즌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 끊기면서 매출이 예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다 식사와 숙박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막혔기 때문이다.  
17일 광양권 고로쇠 채취 농가들에 따르면 유난히 따뜻했던 날씨 탓에 고로쇠 수액 판매 시작일은 작년과 달리 닷새정도 빨라졌지만 정작 고로쇠를 마시러 오는 단체 손님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협회는 최근 광양 시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로쇠 수액 시음행사를 열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고로쇠를 찾는 손님들이 거의 없는데다 이미 오래 전에 방문하기로 했던 예약손님마저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광양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고장이자 최대 생산지로 지난해에는 360여 농가에서 9만t을 채취해 33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고로쇠 수액 판매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고로쇠 수액은 자체 판매 수익도 상당하지만 산지로 직접 마시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고 숙박을 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예약이 거의 취소되는 등 손님들의 발길이 뜸 끊겨버렸다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옥룡면 주민들은 “1월부터 초봄이 시작되는 3월까지 두 달 남짓 고로쇠 수액을 팔아 1년을 먹고하는데 올해는 판매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손님을 가득 태운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찾아왔지만 올해는 단체손님은 커녕 일반 방문객도 하루 한 두 팀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광양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매년 개최해왔던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마저 올해는 전격 취소하면서 생산농가들로서는 ‘앞인데 겹친 격’이 되고 말았다.  
광양시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국내에서도 감염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라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는 우리 지역의 안녕과 번영, 고로쇠 약수의 풍성한 채취를 지원하는 전통 제례이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실시하려 했으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협회 회원들은 광양농협에 오프라인 판매를 의뢰하고,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을 접목하며 판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뚜렷한 판매 확장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고로쇠약수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바뀌면서 고로쇠 수액 판매의 80% 정도가 택배 거래로 이뤄진다”며 “아마저도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역 관광이나 문화 산업으로 연계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광양 옥룡면 백운산 일원에서 고로쇠 약수 채취가 본격화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데다 매년 열렸던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마저 올해는 광양시가 행사를 취소하면서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들이 울상이다.

김경석 기자

“코로나 지원금 받으세요”  
시, 4인가족 기준 123만원

코로나19로 인해 집이나 병원 등 시설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구에 '생활지원금'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17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국가 등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1개월분 긴급복지 생계지원비가 지급되는데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이며 5인 이상 가구는 145만7500원이다.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으며 격리일은 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  
유급휴가비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최영범 기자

### 전남도 공무원 단체 헌혈

코로나19로 어려운 혈액 수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단체 헌혈에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인구가 급감한 상황에 동계방학 등 해마다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시기와 코로나19까지 맞물려 헌혈량이 급격히 줄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전남도청 공무원이 출선수범해 단체로 헌혈에 나서, 민간기업의 관심과 도민이 동참한 분위기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각 시군도 혈액수급이 어려운 동절기에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연간 약 3천여명의 도민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헌혈 문화 확산을 통해 3천 500여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성은 기자

### 광주서 秋 장관에 선빵 날리는 尹 총장

검사장회의 하루 전날 來光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회의 하루 전날 광주에서 선제공격에 나선다.  
추 장관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는데 하루 전인 20일 윤 총장이

직접 광주고검과 지검을 방문해 검사들과 대화를 갖기로 한 것이다.  
17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오후 2시 박성진 광주고검장,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비롯해 관할 검찰청에 근무하는 일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바로 다음 날인 21일은 추 장관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예정된 상황이라 윤 총장의

광주 방문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대검은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총장과 마주할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윤 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도록 지시했으나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았던 부분을 언급하며 “총장 지시를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참여정부 이후 처음 소집된 검사장 회의는 추 장관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수사-기소권 일원화'를 주장하는 윤 총장이 추 장관보다 하루 앞서 현장 검사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주 부산 방문 때도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라면서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이슬 기자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 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 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 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